

소설 『こころ』에 나타난 감정 표현 ‘快·喜’에 관한 번역양상

– 한국어 번역 작품과 영어 번역 작품을 중심으로 –

양 정 순

(경희대학교 강사)

◆ 국문초록

본고는 교육 자료로서의 접근뿐 아니라 담화 속 어휘의 유기적인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소설 『こころ』의 번역본에 나타난 감정 표현 ‘快·喜’에 관한 번역양상을 분석했다.

〈의미상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역은 기본적으로 일본어 품사와 유사하게 전개되는 양상이 보였지만, 하나의 일본어 어휘가 2어 이상의 한국어 역이 되거나 일본어의 명사표현이 한국어 역에서는 서술적 용법으로 바뀌는 모습도 보였다. 감정 표현의 유형을 보면 ‘快·喜’ ⇨ ‘Joy類’ ‘Love類’와 ‘怖’의 상태를 벗어나는 감정 유형이 보였다. 영어 역은 ‘명사 ⇨ 명사, 형용사’ ‘형용사 ⇨ 형용사, 동사’ ‘동사 ⇨ 동사, be+동사의 과거분사, be+동사의 현재분사’로 형용사와 분사표현이 중심을 이루었다. 감정 표현의 유형을 보면 ‘快·喜’ ⇨ ‘Joy類’ ‘Love類’ 예상 밖의 플러스적인 결과, 성취감과 ‘怖’ ‘怒’ ‘哀’의 상태를 벗어나는 감정 유형이 보였다.

감정 주체의 유무에 따른 〈문구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감정 주체에 대한 한국어 역을 보면 일본어가 제시한 대로 번역된 경우가 많았고, 영어 역을 보면 생략된 감정 주체를 대부분 복원시켰다. 감정 주체가 제시된 경우의 한국어 역은 대인 관계를 고려한 표현이 있었고 인칭에 따라 감정의 직접·간접적인 표출로 나타났다. 한편, 원문의 감정 주체의 유무와 관계없이 영어 역에서는 감정 주체 및 무생물 주어 가 제시되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주어 외에 감정원인, 대상, 상황이 주어로 오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따라 화자의 구체적인 동작, 사건의 판단, 원인 유발 분석 등 감정 주체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문 구조가 이용되어 번역되었다. 그리고 일부 예에서는 보고 판단하는 지각동사, ‘快·喜’의 감정 상태를 만드는 사역동사, 인식 동사가 사용되는 등 다양한 표현이 이용되었다. 감정 주체가 없는 문은 ‘快·喜’의 감정 상태를 촉발한 대상을 주어로 내세

위 감정 주체의 상태를 외부에서 판단 가능하도록 설명하거나 화자가 확인하고 추측하는 문형이 이용되어 번역되었다. 그밖에 구체적인 행위, 사건 설명으로 번역하는 등 '快·喜'의 감정 표현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표현이 이용되었다.

주제어 : 감정표현, 감정유형, '즐거움'의 표현, 감정주체

1. 머리말

일본인의 언어문화의 특징 중의 하나로서 감정 표현이 제시되고, 이 표현에는 자기중심적인 시점에서 사물을 다루려는 일본인의 태도가 나타난다고 한다.¹⁾ 이것은 일본인의 발상 중의 하나인 'ウチ' 'ソト'라는 인식과 연관이 있고, 감정 표현에도 'ウチ'의 감정·감각과 'ソト'의 상황을 서술하는 태도가 영향을 끼친다. 게다가 일본어는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²⁾, 일부 감정 표현에는 다른 나라의 언어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이 지니고 있다.³⁾ 그 결과 일본어의 감정 표현이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 있는 그대로 번역되기 어려운 요소가 있다고 한다. 번역이란 출발언어권의 의미체계를 도착언어권의 의미체계로 바꾸는 작업으로, 두 언어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에 따른 언어 자원을 일정의 중개된 표현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이다.⁴⁾ 이처럼 문학작품 속에 사용된 표현에 대한 번역은 사전 그대로의 지시적 표현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번역 문학이 도착 언어의 문화권에서 외국어 학습과 문학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가 있다는⁵⁾ 점에서, 사전적인 표현 정리가 아니라 실제 번역에서 나타난 표현 양상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교육 자료로서의 접근뿐 아니라 담화 속 어휘의 유기적

1) 森田良行, 『日本語の視点—ことばを創る日本人の発想—』, 創拓社, 1995, pp.65-77.

2) 金田一春彦, 『日本語 上』, 岩波新書, 1988, pp.194-204.

3) 楠見孝·米田英嗣, 「感情と言語」 藤田和生(編) 『感情科学の展望』, 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07, pp.55-84.

4) 中村桃子, 『翻訳がつくる日本語』, 白澤社, 2013, p.32.

5) 주4)와 같음, p.52.

인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번역본에 나타난 감정 표현에 관한 번역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감정 표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 가운데 일본어 특징에 초점을 둔 연구, 한일대조 연구, 번역 연구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모리타 요시유키(森田良行)⁶⁾는 화자의 감정이나 심리를 나타내는 감정 표현의 수단으로서 '-は-が+감정 술어' '부사' 등의 표현 어휘를 제시했으며, 인칭과 内·外 관계를 나누어 분석했다. 센코·K·메이나드(泉子·K·メイナード)⁷⁾는 드라마에 나타난 감정 표현에 대해 언어 전략에 의해 실현되는 장면 상황, 시각적 정보를 중심으로 문화적인 접근법을 통해 분석했다. 工藤真由美⁸⁾는 감정동사(内的情態動詞)와 감정·감각형용사에 대해 인칭과 アスペクト·テンス와의 관계를 이용해 그 표현 체계를 분석했다.

김광태⁹⁾는 <哀> <驚> <喜> 등, 일한 양 언어의 의성어·의태어에 관한 감정 표현을 비교 분석했다. 송은미¹⁰⁾는 한일양언어의 감정 표현에 대해, 신체어휘를 중심으로 관용구에 나타난 감정 표현을 분석하고, 또 감정 동사를 감정 변화 동사, 감정 상태 동사, 감정 반응 동사를 분류하고 복합동사의 구조에 대해 분석했다.

-
- 6) 森田良行, 『日本語の視点—ことばを創る日本人の発想—』, 創拓社 1995, p.12, p.65, p.76.
- 7) 泉子·k·メイナード, 『愛するふたりの「感情ことば」』, くろしお出版, 2001, pp.309-313.
- 8) 工藤真由美, 『アスペクト・テンス体系とテキスト—現代日本語の時間の表現—』, ひつじ書房, 1995, p.76, p.176.
- 9) 김광태, 『日韓兩言語의感情의 오노매토피어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10) 송은미, 「日·韓兩言語の慣用句に現れる感情表現」, 『日本語學研究』 제4집, 2001, pp.143-163.
 「한일 양언어의 감정보합동사의 구조분석」, 『日本語學研究』 제30집, 2011, pp.173-188.

김경정¹¹⁾은 번역된 문학작품을 예를 들어 문학작품이 제2 언어로 재현될 때의 특징을 분석했고, 그 결과 번역자의 창조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한정¹²⁾은 한국어 번역본과 일본어 원작과 대조 분석을 하면서, 읽는 대상, 언어적 특성, 문화적 특성에 따라 번역본마다 나타난 차이를 분석했다. 이와같이 감정 표현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감정을 묘사하는 어휘를 연구 대상으로 주고 『소설 『こころ』에 나타난 감정 표현 ‘怖’에 관한 번역 양상』에 이어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작품은 인간의 내면과 갈등을 ‘私’시점에서 서술한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こころ』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번역작품으로는 소설 『こころ』의 많은 번역물 가운데, 식민지 이후 공식 출판된¹³⁾ 1990년의 한국어 번역작품으로 했다. 그리고 번역 양상의 특징을 구체화하기 위해 영어 역을 더했다.¹⁴⁾ 또 비교 대조를 위해 동일한 작품의 다른 번역작품도 참고로 했다. 분석 대상 어휘로는 소설 『こころ』에서 나타난 ‘快·喜’와 관련된 표현이고, 번역된 표현이 도착 언어에서는 어떤 영역으로 다루어졌는지 감정 유형에 초점을 둔다. 일본어의 특징 중의 하나로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인칭 생략과 같은 의한 부분적 생략이 제시되고,¹⁵⁾ 외국어로서 일본어 번역 학습에서 인칭대명사 표현에 관한 주의가 요구되듯이¹⁶⁾ 번역된 ‘快·喜’가 포함된 문의 구조 속에서 감정 주체와 인칭에 초점을 둔다. 감정 주체(‘快·喜’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가 나타난 경우와 생략된 경우를 나누고, 감정 주체에 대해 1인칭(=발화행위주체)과 1인칭이 아닌 경우(2·3인칭)로 나누어¹⁷⁾ 한국어 역과 영어 역은 어

11) 김경정, 「일한문화번역의 독자지향적 경향 연구 -『도련님』 번역본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36, 2007, pp.183-202.

12) 이한정, 「번역된 텍스트의 이질적 공간-나쓰메 소세키 『도련님』의 한국어역에 대하여-, 『일본어교육』 50, 2009, pp.225-240.

13) 윤상인 외, 『일본문학 번역 60년 현황과 분석』, 소명출판, 2008, p59 p.189.

14) 『마음』, 서석연 역, 범우사, 1990.

『KOKORO』, Edwin McClellan, HENRY REGNER COMPANY, 1957.

15) 牧野成一, 『ウチとソトの言語文化学—文法を文化で切る』, アルク, 1996, pp.40-49.

16) 金谷武洋, 『日本語文法の謎を解く』, ちくま新書, 2003, p.41.

17) 주9)와 같음, pp.89-90, pp173-177.

면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문의 구조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감정 표현 어휘는 『分類語意表(国立国語研究所, 2004)』의 '快·喜'를 바탕으로 나카무라 아키라(中村明)의 『感情表現辞書』의 감정 어휘를 더해 분석한다.

III. 의미상의 특징

소설 『こころ』에 나타난 '快·喜'에 관한 감정 표현을 바탕으로 번역 예를 정리한 결과 다음과 같다.

[표 1] 『こころ』의 '快·喜'에 관한 표현의 번역 예

		한국어	영어
명사	愉快(1)	기분을 풀다(1)	induced gaiety(1)
	喜び(2)	기쁨(1), 기뻐하다(1)	happy(1) unaffected pleasure(1)
	歡喜(1)	환희(1)	with a sense of joy(1)
	喜悅(1)	희열(1)	be happy(1)
	楽しみ(2)	낙(2)	look forward to(1) pleasure(1)
	歡樂(1)	환락(1)	intellectual satisfaction(1)
	娛樂(1)	재미(1) 오락(1)	novel(1) intellectual satisfaction(1)
	楽天的(1)	긍정적(1)	be optimistic(1)
형용사	嬉しさ(3)	기뻐할 마음(1) 기쁨(2)	make happy(1) high spirit(1) happiness(1)
	明るい(4)	밝은(3) 눈부신(1)	be revealed(1) understanding(2) sunny(1)
	嬉しい(13)	기쁘게 하다(1) 기쁘다(8) 밝다(1) 즐거워하다(1) 속이 후련하다(1) 보람을 느끼다(1)	happiness(1) happy(7) glad(2) please(1) how fortunate(1) find satisfaction(1)
	おもしろい(10)	재미있다(3) 보기 좋다(1) 유심하다(1) 구성지다(1) *나빠지다(1) *분위기가 싫다(1) *좋지 않다(1) *유쾌하지 않다(1)	with pleasure(1) pleasure(1) mild(1) be happy(1) feel not tire of(1) enjoy(1) strike one's fancy(1) *annoy(1) *take worse(1) *become worse(1)
	快い(6)	경쾌하다(1) 쾌하다(2) 멋뜻하다(1) 마음 편하다(1) 시원스럽다(1)	willingly(2) interested(1) felt+passing(1) feel+pleasure(1) *be ashamed of(1)

	한국어	영어	
형용사	おかしい(5)	우습다(4) 우습기 짝 없다(1)	strange(1) amuse(1) be amusing(2) be inconsistent(1)
	いい心持(6)	기분이 좋다(4) 안락하다(1) 기분이 좋아지다(1)	cheer up(1) feel good(1) like(1) nice(1) comfort(1) comfortable(1)
	心持がいい(1)	기분이 좋다(1)	make comfortable(1)
	機嫌がよい(2)	기분이 좋다(2)	good mood(1) cheerful mood(1)
	興味ある(1)	흥밋거리(1)	naturally wander(1)
	晴やかだ(3)	기분이 들뜨다(1) 들뜨다(1) 밝은(1)	feel happy(1) cheerful(1) be gay(1)
	愉快だ(16)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1) 즐겁다(2) 기분이 좋다(3) 좋다(1) 가볍다(1) 정말 기분이 좋다(1) 유쾌하다(5) 통쾌하다(1) 없음(1)	enjoy oneself(1) gay(2) take pleasure(1) fun(1) nice(1) happily(1) be happy(1) please(1) be pleased(1) be pleasing(1) cheerful(3) cheer up(1) 없음(1)
	快活	쾌활하다(1)	be cheerful(1)
	楽だ(12)	한가하다(1) 편하다(1) 편안하다(1) 수월하다(1) 어려움이 없다(1) 쉽다(1) 벗어나다(1) 편안하다(3) 편하다(2)	be free(1) be consolation(1) left open(1) comfortable(2) make comfortable(1) be easy(1) easy(1) be able to(1) enjoy oneself(1) fortunately(1) 없음(1)
	気楽だ(4)	자유롭다(1) 마음 편히 지내다(2) 홀가분하게 지내다(1)	be carefree(1) be free(1) without worry(1) easygoing(1)
喜んで(2)	즐기면서(1) 즐길 수 있어(1)	happily(1) enjoy(1)	
동사	うれしがる(6)	기뻐하다(4) 기쁘다(1) 바라다(1)	pleasure(1) be pleased(1) please(1) be happy(1) happy(1) affection(1)
	喜ぶ(16)	기뻐하다(13) 기쁘다(1) 축하하다(1) 좋아하다(1) 기쁨을 가눌 길 없다(1)	be glad(2) be pleased(8) be happy(3) pleasure(1) happiness(1) welcome(1)
	喜ばす(1)	기쁘게 하다(1)	make happy(1)
	楽しみに(1)	즐기다(1)	look forward to(1)
	さっぱりする(1)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다(1)]	[be suspicious(1)]
	うきうきする(1)	[신이 나있지 않다(1)]	[not to invite a merry(1)]
	慰む(6)	위로하다(4) 위로를 얻다(1) 위로받다(1)	comfort(3) gently(1) comforter+V(1) the comforted+V(1)

번역 예 앞의 ‘*’는 부정형에 대한 번역 표현

[표 1]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어 역은 '명사 ⇨ 명사, 형용사' '형용사 ⇨ 형용사, 동사' '동사 ⇨ 형용사, 동사'와 같이 전개되는 양상이 보였다. 일부 예에서는, 일본어의 하나의 어휘가 한국어에서는 2어 이상의 표현으로 바뀌거나 일본어의 명사표현이 한국어 역에서는 서술적 용법으로 바뀌는 모습이 보였다. 또 감정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 부사 표현이 더해지거나 이중 부정표현을 이용해 번역되었다. 영어 역은 '명사 ⇨ 명사, 형용사' '형용사 ⇨ 형용사, 동사' '동사 ⇨ 동사, be+동사의 과거분사, be+동사의 현재분사'로 형용사와 분사표현이 중심을 이루었다.

감정 표현의 유형과 의미특성에 대한 분류를¹⁸⁾ 보면 한국어 역은 'Joy類' 외에 '좋아하다' '바라다'¹⁹⁾등과 같은 'Love類'의 감정 표현이 사용되었다. 또한 '밝다' '긍정적이다' '구성지다'와 같이 대상과 문의 맥락에 따른 표현도 보였다. 그리고 부정표현으로 사용된 번역 예를 보면 '의심하다'와 같은 'Fear類('怖'의 상태)'의 감정 유형의 표현이 이용되었다. 영어 역의 경우, 'Joy類' 외에 'Affection'과 같은 'Love類'의 감정 표현의 유형이 보였다. 또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는'자유' '기대' '가능' '행운' '모순되지 않음'과 같이 신체의 안락함, 예상 밖의 플러스적인 결과, 목표 달성에 대한 성취감을 나타내는 표현 외에 구체적인 동작 및 동작 작용·결과로도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정표현으로 사용된 번역 예를 보면 'worry' 'annoy' 'ashame'와 같은 'Fear類' 'Anger類' 'Sadness類'가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분석 작품 내에서 재구성된 감정 표현의 유형과 의미는 사전의 지시적 표현 외에 문장 내에서 유기적 관계의 영향을 받아 의미영역이 확장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문의 구조를 중심으로 일본어

18) 최석재, 「감정동사의 유형과 그 의미특성」, 『어문논집』 58, 2008, pp.127-159.
Shaver, P. and Schwarth, J. Kirson, D. and O Connor, C. 「Emotion Knowledge: Further Exploration of a Prototype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6, 1987, pp.1061-1086.

'Joy類'로 'Delight, Enjoyment, Happiness, Pleasure, Hope, Relief……: 유쾌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보람차다, 평온하다, 상쾌하다……', 'Love類'로 'Affection, Attraction, Desire……: 간원하다, 간절하다, 원하다, 소원하다……'를 제시하고 있다.

19) 김은영, 「국어 감정 동사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위 논문에 따르면, '좋아하다'는 '좋아함類', '바라다'는 '바람類'에 해당되었다.

특징 중의 하나인 감정 표현과 주어와의 관계에 대해 서술한다.

VI. 문 구조의 경우

일본어의 특징 중의 하나로, 화자와 청자가 일정한 공간에서 공감한 정보는 생략할 수 있어,²⁰⁾ 문중에 나타내지 않는 것을 들고 있다.²¹⁾ 이는 일본어의 문법 특징, 어휘, 장면 등을 통해 복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음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중에 감정 주체가 있는 경우와 생략된 경우를 나누고, 작중 인물의 감정을 서술하는 서술자에 따라²²⁾ 회화문, 지문, 편지문으로 나누어 한국어 역과 영어 역의 번역 양상을 서술한다.

1. 문중에 감정 주체가 있는 경우

1-1. 회화문의 경우

회화문의 경우, 사람 주어로 감정 주체가 나타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회화문-감정 주체가 있는 경우

		일본어	한국어		영어	
형용사	嬉しい	親の身は(1)	부모의 입장은(1)	기쁘다	I(1)	be happy
	おもしろい	お前は(1)	네 입장은(1)	유쾌하다	You(1)	it+annoy
		先生は(1)	선생은(1)	재미있다	He(1)	be happy
	愉快だ	あなたは(1)	당신은(1)	즐거운가보다	You(1)	seem to gay
동사	楽しむ	私は(1)	내 마음이(1)	편하다	There be(1)	consolation
	喜ぶ	あなた(1)	당신도(1)	축하하다	You(1)	be pleased
		お父とうさんは(1)	아버지도(1)	기뻐하시다	Father(1)	be pleased

20) 주16)와 같음 p.41.

21) 주15)과 같음 pp.80-99.

22) 주8)과 같음 pp.191-210.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 역은 상하 관계에 따른 어휘 선정과 감정을 느끼는 사람 주체 외에 감정 주체의 신체가 주어로 제시되었다. 영어 역은 'be+형용사' '동사' 'be+동사의 분사표현'으로 제시되었으며, 자기 중심적인 사람 주어 외에 분위기 및 상황을 설명하는 문장구조도 있었다.

- (1) 「ええ、もしそれが原因だとすれば、私の責任だけじゃなくなるんだから、それだけでも私大変楽になれるんですが、……」
 “네, 만일 그것이 원인이라면 내 탓은 아니니까,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아주 편해질테지만”
 “Yes. If it was indeed the cause, then I was not responsible. There would be at least a little consolation in knowing that much, if I could be sure…”
- (2) 「それでもその人のお蔭で地位ができればまあ結構だ。お父とうさんも喜んでるようじゃないか」
 “그래도 그 사람 덕택에 취직을 하게 된다면 좋기야 하겠지.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아니냐?”
 “But one mustn't grumble,” he went on to say. “Fortunately, it seems that he has found a job for you. Father is very pleased about that.”

예(1)처럼 일본어 문장의 감정 주체 '私'에 대해 한국어 역은 감정 주체가 느끼는 신체 부위로 제시되면서 감정의 직접적인 표출로 나타났지만, 영어 역은 감정 주체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문 구조를 제시해 번역했다. 감정 주체가 1인칭일 때의 한국어 역은 예(1)처럼 화자의 주관적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3인칭일 때는 예(2)처럼 화자, 청자, 제3의 인물 간의 상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 '-시'가 더해져 번역되었다. 또 화자의 추측이나 전망을 나타내는 '-ㄴ것'을 문말에 두어 주관적 입장에 따른 번역 예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영어 역은 감정 주체를 주어로 하는 수동 표현과 상황을 주어로 하는 문장구조가 보였다.

1-2. 지문의 경우

문장의 생략 범위는 의미가 복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처럼²³⁾, 지문에서는 감정 주체를 어떤 형태로든 드러내는 편이었다. 지문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표 3] 지문-감정 주체가 있는 경우

		일본어	한국어		영어	
명사	喜び	私に(1)	나에게(1)	기쁨	me	make happy
		父の(1)	아버지의(1)	기뻐하다	father's(1)	pleasure
	歡喜	私は(1)	나는(1)	환희	My whole body (1)	be filled with a sense of joy
	歡樂	先生は(1)	선생은(1)	환락	Sensei(1)	intellectual satisfaction
	娯樂	私に(1)	생략(1)	재미	me (1)	novel
		私に(1)	나한테(1)	오락	me (1)	entertain
	樂天的	私は(1)	나는(1)	긍정적	I(1)	be optimistic
嬉しさ	自身の(1)	나 자신이(1)	기쁨	me(1)	I(1)	make happy
	私の(1)	나로(1)	기뻐할 마음			be in high spirits
형용사	明るい	私は(1)	나는(1)	밝다	he(1)	be fully revealed
		父の(2)	아버지의(2)	밝다	father's(2)	understanding
	嬉しい	私は(2)	나는(2)	기쁘다	I(1) me(1)	feel happiness make happy
		私の(1)	내(1)	즐거워하다	my(1)	happy
		病人は(1)	환자는(1)	기쁘다	father(1)	look please
	おもしろい	群集は(1)	사람들은(1)	기쁘다	face(1)	look happy
		私は(1)	나는(1)	*싫다	I(1)	enjoy
	父の(2)	아버지의(2)	*나빠지다	father(1)	*become worse	
		아버지의(2)	*좋지않다	father's(1)	*take worse	
	快い	私は(2)	나는(2)	경쾌하다	I(2)	feel willingly
		先生は(1)	선생은(1)	쾌하다	He(1)	willingly
	おかしい	私は(1)	나는(1)	우스게 여기다	me(1)	amuse
機嫌がよい	先生は(1)	선생은(1)	좋아 보이다	Sensei(1)	seem to be in good	

23) 久野暉, 『談話の文法』, 大修館書店, 1978, pp.103-124.

	일본어	한국어	영어	
형용사	興味ある	二人に(1)	사람에게(1) 흥밋거리	생략(1) wander
	晴やかだ	私は(1)	나는	들뜨다 I(1) feel happy
	愉快だ	私も(1)	나도(1)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I(1) enjoy oneself
		先生は(1) 父は(1)	선생은(1) 아버지는(1)	유쾌하게 보이다 유쾌한 듯하다 Sensei(1) He(1) seem - cheerful cheerfully
	楽だ	父は(1)	아버지는(1)	편안해지다 He(1) feel comfortable
		人の(1)	여인의(1)	편하게 하다 없음(1) 없음
		病人を(1)	환자를(1)	편하게 하다 father(1) make comfortable
	気楽だ	私は(1)	나는(1)	마음 편하다 I(1) without worry
	동사	うれしがる	父より(1)	아버지보다(1) 기뻐하시다 father's(1) pleasure
		喜ぶ	私は(1)	나는(1)
父は(1)			아버지는(1)	기뻐하다 He(1) be pleased
母は(1)			어머니는(1)	She(1)
父の前(1)			아버지 앞(1)	기뻐하다 father(1) pleasure
うきうきする		先生の(1)	선생의(1)	신이나다 Sensei's (1) seem to - a merry
慰む		私は・も(3)	나는・도(3)	위로하다 I(3) comfort
		奥さんも(2)	부인도(2)	위로받다 위로를 얻다 she(2) find comfort comforted

번역 예 앞의 '*'는 부정형에 대한 번역 표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일본어 어휘가 한국어에서 2어 이상의 표현으로 바뀌거나 일본어의 명사표현이 서술적 용법으로 바뀌는 모습이 보였다. 감정 주체에 대해서는 일본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번역되었다. 영어 역은 'be+형용사' 'be+동사의 분사표현' '동사'로 제시되었다. 이때의 동사는 보고 판단하는 지각 동사, '快·喜'의 감정 상태를 만드는 사역동사, 인식 동사가 사용되었다. 또 자기중심적인 사람 주어 외에 감정원인, 대상, 상황이 주어로 오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따라 화자의 구체적인 동작, 사건의 판단, 원인 유발 분석 등의 표현하는 문형으로 나타났다.

- (3) 私は心のうちでこの父の喜びと、卒業式のあった晩先生の家うちの食卓で、「お目出とう」といわれた時の先生の顔付とを比較した。
 나는 그렇게까지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졸업한 날 밤 선생 집 식탁에서 “축하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의 선생의 표정을 비교해보았다.
 Inwardly, I compared my father's unaffected pleasure with the way Sensei had congratulated me that night at the dinner table.
- (4) そう思うと、その簡単な一本の手紙が私には大層な喜びになった。
 그런 생각이 들자 그 한 통의 간단한 편지가 나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었다.
 That he should have troubled to do so made me very happy.
- (5) その中に知った人を一人ももたない私も、こういう賑やかな景色の中に裹まれて、砂の上に寝そべてみたり、膝頭ひざがしらを波に打たしてそこいらを跳はね廻まわるのは愉快であった。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는 사람이라곤 한명도 없는 나도 그런 흥청거리는 분위기에 휩쓸려 모래 위에 엎드려보기도 하고 무릎을 파도에 적시면서 바닷가를 뛰어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Alone in this noisy and happy crowd, I managed to enjoy myself, dozing on the beach or splashing about in the water.

한국어 역의 경우를 보면, 예(3)처럼 일본어의 명사표현이 서술적 용법으로 바뀌는 모습이 보이거나 예(5)처럼 2어 이상의 어휘를 이용해 번역하기도 했다. 1인칭 인물인 경우를 보면, 한국어 역은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 상태를 직접적으로 서술했으며, 1인칭 인물이 아닌 경우는 예(3)처럼 ‘~모습’과 같이 시각적인 근거를 서술자가 제시하는 경향이 보였다. 영어 역을 보면, 감정 주체가 1인칭 인물인 경우, 예(4)와 예(5)처럼 감정 주체의 ‘快·喜’의 과정을 설명하거나 적극적인 행위로 제시했다. 1인칭 인물이 아닌 경우, 예(3)처럼 서술자는 비교대상을 제시하는 등 감정에 대한 이유 판단을 제시해 서술했다.

1-3. 편지문인 경우

감정 주체가 있는 편지문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표 4] 편지문-감정 주체가 있는 경우

		일본어	한국어		영어		
명사	喜悦	私は(1)	나는(1)	희열	I(1)	be happy	
	嬉しさ	妻は(1)	아내는(1)	기쁨	She(1)	happiness	
형용사	嬉しい	私は(3)	나는(1)	속이 후련하다	I(2)	be glad	
			나를(1)	보람을 느끼다			
	奥さんは(1)	아주머니는(1)	밝은 표정이다	Okusan(1)	seem -- happy		
		私に(1)	K는(1)	*불쾌하다	K(1)	seem interested	
	おかしい	お嬢さんは(1)	따님은(1)	우습다	You(1)	be inconsistent	
	いい心持	私は(1)	나에게(1)	안락하다	I(2)	comfortable	
			私に(1)	생략(1)			기분이 좋다
	機嫌がよい	奥さんも(1)	아주머니도(1)	기분이 좋다	Okusan(1)	cheerful mood	
	晴やかだ	女二人の(1)	여인은(1)	기분이 들뜨다	ladies(1)	be gay	
	愉快だ	私は・も(5)	나는(5)	즐겁다,	I(5)	one's own free	
나도(1)			가볍다				
생략(1)			통쾌하다,				
			유쾌하다				
快活だ	私は(1)	나(1)	쾌활하다	I(1)	be cheerful		
楽だ	私は(1)	내가(1)	쉽다	I(1)	the easiest		
		私か(1)	나는(1)	벗어나다	me(1)	leave open	
気楽だ	人(1)	학생들도(1)	(자유롭게)	one(1)	easygoing		
喜んで	私は(1)	나는(1)	즐기면서	I(1)	happily		
동사	うれしがる	私は(2)	나는(2)	기쁘다,	I(2)	be pleased	
			자기가(1)	기뻐하다			
			여자들은(1)	바라다			
	喜ぶ	私は(1)	나는	기쁨을 가늠	I(1)	be happy	
			K에(1)	K에게(1)			기뻐하다
			みんな(1)	모두(1)			기뻐하다
			彼は(1)	그는(1)			
	Kが(1)	K가(1)					
	奥さんは(1)	아주머니는(1)	Okusan(1)				
	楽しむ	私は(1)	생략(1)	즐기다	I(1)	look forward to	
さつぱりする	私には(1)	나는(1)	*의심을 못 떨치다	I(1)	be suspicious		

번역 예 앞의 '*'는 부정형에 대한 번역 표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 역을 보면, 하나의 일본어 어휘는 2어 이상의 표현으로 제시되거나 부사 표현이 더해지거나 이중 부정 표현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감정 주체에 대해서는 감정이 드러나는 신체표현이 더해지기도 했지만 대부분 일본어에 대응하여 번역되는 모습이 보였다. 영어 역은 ‘be+형용사’ ‘동사’ ‘be+동사의 분사표현’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표현, 감탄문으로 제시되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주어 외에도, 외부에서 원인과 결과를 판단하도록 감정 원인이나 상황을 주어로 내세우거나 제 3자의 인물에 대해서는 화자가 오감으로 확인하고 상황을 추측하는 ‘seem’를 이용하여 번역되기도 했다.

- (6) 私はまた父や母のいた時より、かえって賑やかで陽気になった家の様子を見て嬉しがりました。

나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오히려 더 활기 넘치는 집안 분위기에 기뻐했습니다.

I was pleased too, for the house had become a gay place; much gayer certainly than when my parents were alive.

- (7) 彼の座敷は本堂のすぐ傍の狭い室へやでしたが、彼はそこで自分の思う通りに勉強ができたのを喜んでいるらしく見えました。

그의 거처는 본당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좁은 방이었는데, 그는 거기서 자기 생각대로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His room was a small one very close to the main temple building; he was very happy that there he had been able to study to his heart's content.

- (8) たまに親子連れて外出した女二人の気分が、また平生へいぜいよりは勝れて晴やかだったので、我々の態度はなおの事眼に付きまず。

모처럼 함께 외출을 했던 두 여인은 평소보다 한층 더 기분이 들떠 있어서 폭 가라앉은 K와 내 태도는 더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The ladies on the other hand, having returned from a rare outing, were unusually gay, which made our gloomy behavior all the more noticeable in contrast.

- (9) その代りなるほどという様子も見せませんでした。私にはそこが愉快でした。

그런가 하면, 과연 그렇군하고 수긍하는 기색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점이 유쾌했습니다.

On the other hand, he did not appear to be convinced. This pleased me.

한국어 역의 경우를 보면, 예(6)(7)처럼 과거에 품었던 감정 표현에 대해 객관적인 외적 반응을 기술한 감정반응 동사²⁴⁾로 번역되거나, 예(8)(9)처럼 2어 이상의 어휘를 이용해 번역되기도 했다. 감정 주체가 1인칭인 경우, 서술자는 직접적인 감정 상태를 제시했고, 1인칭이 아닌 경우는 '~보이다' '전과 다른 상태~' 등 감정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표현이 이용되어 번역되었다. 영어 역을 보면, 예(8)처럼 '예기치 않음' '평소와 다름'의 부사 표현을 더해 감정 주체의 상태를 표현하거나 예(9)처럼 일본어의 인칭과는 별개로 '快·喜'의 원인인 상황을 주어로 내세워 감정 주체의 상태를 설명하는 번역이 보였다.

2. 문중에 감정 주체가 없는 경우

2-1. 회화문의 경우

[표 2]와 비교해보면 '대상가+서술표현'만으로도 화자가 유추가능하고 자기중심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문중에 감정 주체가 있는 것보다 없는 문장이 더 많았다.

[표 5] 회화문-감정 주체가 없는 경우

	일본어	한국어		영어		
명사	楽しみ	생략(1)	낙	I(1)	look forward to	
형용사	嬉しい	생략(2)	기쁘다	I(1) He(1)	be happy, fortunate	
	おもしろい	생략(1)	재미있다	men(1)	with pleasure	
	いい心持	생략(4)	생략(4)	기분이 좋다	I(1) It(1)	like, cheer up
				기분이 좋아지다	you목(2)	nice, feel good
	愉快だ	생략(3)	생략(2) 없음(1)	기분이 좋다	me(1) You(1) 생략(1)	fun, feel gay seem to cheer up
	楽だ	생략(2)	생략(2)	편하다 편안하다	We(1) He(1)	can, be able to
	気楽だ	생략(2)	생략(2)	홀가분하게 지내다 마음 편히 지내다	You(2)	be carefree be free
동사	喜ぶ	생략(2)	생략(2)	기뻐하다	I(1) He(1)	be glad
	喜ばす	생략(1)	생략(1)	기쁘게 하다	him(1)	make happy

24) 이원경, 「감정동사의 분류와 특성분석」, 『담화의 인지』 13, 2006, pp.163-182.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 역은 2어 이상의 표현으로 바뀌거나 형용사가 부사 표현으로 바뀌고 동사 표현이 더해져 나타났다. 감정 주체는 대부분 일본어가 제시한 것처럼 생략되어 번역되는 모습이 보였다. 영어 역은 ‘be+형용사’ ‘동사’ ‘be+동사의 분사표현’ 그리고 부사 표현 등으로 제시되었다. 생략된 감정 주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 주어로 복원시키기도 했지만, 감정 원인이나 상황을 주어로 제시하기도 했으며 이때의 동사는 상태를 만들도록 하는 사역동사와 가능 동사가 이용되어 번역되기도 했다.

- (10) これから六月までは一番気楽な時ですね。ことによると生涯で一番気楽かも知れない。

이제부터 6월까지 아주 홀가분하게 지낼 수 있겠군요. 어쩌면 당신 생애에 가장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시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You will be really carefree from now till June, won't you? Perhaps you will never again in your life be so free from responsibility.

- (11) そこへお前が卒業してくれた。だから嬉しいのさ。

그런데 네가 졸업해주었다. 그러니까 기쁘지.

And now, you have graduated. I am happy because you,

- (12) 「どうです、浣腸して少しは心持が好くなりましたか」

“어떠세요? 관장을 하고나니 기분이 좀 좋아지셨어요?”

“How do you feel? Has the enema made you more comfortable?”

- (13) 「時によると大変愉快になる。しかしいつでもというわけにはいかない」

“때론 아주 기분이 좋아지지. 그러나 언제나 그런 건 아니야”

“Yes, sometimes it seems to cheer me up. But you know, it doesn't always.”

한국어 역의 경우를 보면, 감정 주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본어가 제시한 것처럼 생략되어 번역되는 모습이 보였다. 다만 예(10)처럼 생략된 2명 이상의 동일한 감정 주체를 모두 생략하지 않고 의미 전달을 위해 둘 중 하나는 복원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감정 주체가 1인칭이 아닌 인물인 경우는 대인 관계를 고려한 표현이 제시되거나 추측 표현이 제시되기도 했다. 영어 역의 경우, 생략된 감정 주체를 대부분 복원시켰으며, 문 구조의 특징을 보면 감정의 원인과 결과, 그 과정에 초점을 두어 번역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12)처럼 '快·喜'의 감정 상태를 촉발한 대상을 주어로 내세워 사역동사를 이용해 감정 주체의 상태를 외부에서 판단 가능하도록 설명하거나, 예(13)처럼 '快·喜'의 원인 대상을 주어로 내세워 화자가 확인하고 추측하는 'seem'를 이용하여 번역되기도 했다.

2-2. 지문의 경우

감정 주체가 생략된 지문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표 6] 지문- 감정 주체가 없는 경우

		일본어	한국어		영어	
명사	愉快	생략(1)	생략(1)	기분	I (1)	gaiety
형용사	おかしい	생략(1)	생략(1)	우습다	She(1)	strange
	晴やかだ	생략(1)	생략(1)	밝다	He(1)	cheerful
	愉快だ	생략(1)	생략(1)	유쾌하다	I(1)	be happy
	楽だ	생략(2)	생략(2)	한가하다, 수월하다	I(1) 생략(1)	be free, be easy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 역은 대부분 일본어가 제시한 것처럼 감정 주체가 생략되어 나타났으며, 사전적인 표현이 아니라 담화 속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확장된 표현으로 나타났다. 영어 역은 'be+형용사' '형용사' 표현으로 제시되었으며, 감정 상태 외에도 행위의 성질을 설명하는 표현으로도 번역되었다. 또 생략된 감정 주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 주어로 복원시키기도 했다.

- (14) その上技巧で愉快を買った後には、きっと沈鬱な反動があるのです。
그럴 경우 인위적인 방법으로 기분을 푼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반드시 침울한 반동이 뒤따랐습니다.

Moreover, when I did succeed in reaching a state of artificially induced gaiety, I would be sure to sink into deep gloom afterwards.

- (15) 癪に触らないばかりでなくかえって愉快だった。
화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유쾌하기까지 했다.

Far from being annoyed, I was happy.

(16) 父は傍はたのものを辛つらくするほどの苦痛をどこにも感じていなかった。その点になると看病はむしろ楽であった。

아버지는, 곁에 있는 사람이 보기 딱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았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간호하기에는 오히려 수월했다.

He was not in great pain, and we were thus spared the strain of having to watch him suffer. From this point of view, nursing him was a relatively easy task.

한국어 역의 경우, 회화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정 주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본어가 제시한 것처럼 생략시켜 번역되었고, 서술자의 판단에 의한 감정 표현으로 번역되었다. 그에 따라 예(14)처럼 서술어의 성질에 따라 감정 표현의 어휘가 바뀌거나 예(15)처럼 대립 관계의 감정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 ‘조사’가 더해져 번역되기도 했다. 또 예(16)처럼 문장 내의 유기적 관계에 따라 번역어휘가 선정되기도 했다. 영어 역을 보면 생략된 감정 주체를 대부분 복원시켰고, 예(14)처럼 사건을 판단하는 서술자가 ‘快·흥’의 속성까지 제시하거나 예(16)처럼 서술자의 구체적인 행위와 행위의 성질로 번역하기도 했다.

2-3. 편지문인 경우

편지를 쓴 ‘글쓴이’가 있고 편지를 읽을 ‘상대’가 정해진 편지문은 지문에 비해 비교적 감정 주체가 생략된 표현이 많았다. 감정 주체가 생략된 편지문은 다음과 같다.

[표 7] 편지문-감정 주체가 없는 경우

		일본어	한국어	영어	
형용사	楽しみ	생략(1)	생략(1)	낙	He(1) take pleasure
	明るい	생략(1)	생략(1)	눈부시다	It(1) sunny
	嬉しい	생략(1)	생략(1)	기쁘다	I(1) be happy
사	おもしろい	생략(5)	생략(5)	유심하다, 보기 좋다	I(2) my(1) take pleasure
				재미있다, 구성지다	You(1) mild, fancy 생략(1) never tire of

		일본어	한국어		영어	
형용사	快い	생략(2)	생략(2)	마음이 편하다 *땀땀하지 못하다	I(1) his(1)	feel pleasure *be ashamed of
	おかしい	생략(2)	생략(2)	우습다	me(1) She(1)	found amusing be amusing
	愉快だ	생략(1)	생략(1)	기분이 좋다	I(1)	be pleased
	楽だ	생략(2)	생략(2)	편히 쉬다 어려움이 없다	He(1) 생략(1)	enjoy oneself Fortunately
	喜んで	생략(1)	생략(1)	즐기다	He(1)	enjoy
동사	うれしがる	생략(1)	생략(1)	(흐뭇한 마음) 즐기다	He(1)	feel affection
	喜ぶ	생략(1)	나를(1)	기뻐하다	I(1)	be happy
	慰む	생략(1)	나를(1)	위로하다	She(1)	gently

번역 예 앞의 ‘*’는 부정형에 대한 번역 표현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 역을 보면 2어 이상의 표현으로 바뀌거나 부정 표현이 이용되어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사전적인 표현이 아니라 담화 속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났다. 감정 주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본어가 제시한 것처럼 감정 주체가 생략되어 나타났다. 영어 역은 ‘be+형용사’ ‘동사’ ‘be+동사의 분사표현’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표현으로 제시되었다. 생략된 감정 주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 주어로 복원시켰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快·喜’의 감정 상태를 만드는 인식 동사가 사용되었다.

(17)むしろ愉快に感じたくらいです。ところがそのうちに私の猜疑心さいぎしんがまた起って来ました。

오히려 기분이 좋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남을 믿지 못하는 내 버릇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I was even pleased. Before long, however, I began once more to suspect her motives.

(18)纏った詩だの歌だのを面白そうに吟ぎんずるような手緩てぬるい事はできないのです。

잔잔한 시나 노래를 구성지게 읊조리는 정서적인 일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I could find no satisfaction in such mild forms of emotional release as reciting a poem or singing a song.

(19) そのお嬢さんの下手な活花を、どうして嬉しがって眺ながめる余裕があるか。同じく下手なその人の琴をどうして喜んで聞く余裕があるか
어떻게 그녀의 어설플 꽃꽂이 솜씨를 흐뭇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었는가, 또한 왜 그 서투른 거문고 연주를 듣기 좋아했는가.

how is it that he was able to feel affection for Ojosan? How could he have enjoyed her bad flower arrangement and her koto-playing?

(20) 彼の血潮の大部分は、幸い彼の蒲団に吸収されてしまったので、畳はそれほど汚れないで済みましたから、後始末はまだ楽でした。

다행스럽게도 그 피의 대부분은 그의 이불에 흡수되어 다다미가 과히 더럽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뒤처리를 하는데 그리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Fortunately, most of the blood had been absorbed by the quilted bedding, and very little had touched the floor mats.

한국어 역의 경우를 보면, 감정 주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본어가 제시한 것처럼 생략시켜 번역되었지만, 생략된 주체가 1인칭이 아닌 경우, 서술자의 입장에서 대상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어휘가 선정되어 번역되었다. 그에 따라 예(17)(18)처럼 주어와 서술어의 성질에 따라 감정 표현의 어휘가 바뀌거나 예(19)처럼 감정 유형을 유지하면서 2어 이상으로 구성된 표현으로 제시하거나, 예(20)처럼 부정표현을 이용해 번역되기도 했다. 영어 역을 보면 생략된 감정 주체를 대부분 복원시켰고, 문 구조의 특징을 보면 감정의 원인과 결과, 그 과정에 초점을 두어 번역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예(18)처럼 ‘快·喜’의 대상의 성질을 제시하거나 예(20)처럼 문장 수식하는 부사 표현을 이용해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도 했다.

V. 맺음말

본고는 교육 재료로서의 접근뿐 아니라 담화 속 어휘의 유기적인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소설 『こころ』의 번역본에 나타난 감정 표현 ‘快·喜’에 관한 번역양상을 분석했다.

‘快·喜’에 관한 표현이 도착 언어에서는 어떤 영역으로 다루어졌는지

감정 유형과 일본어 특성에 초점을 두어 <의미상의 특징>과 <구조상의 특징>으로 문중에 감정 주체가 있는 경우와 문중에 감정 주체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했다.

<의미상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역은 '명사 ⇨ 명사, 형용사' '형용사 ⇨ 형용사, 동사' '동사 ⇨ 형용사, 동사'와 같이 전개되는 양상이 보였다. 일부 예에서는, 하나의 일본어 어휘가 2어 이상의 한국어 역으로 되거나 일본어의 명사표현이 한국어 역에서는 서술적 용법으로 바뀌는 모습이 보였다. 또 감정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 부사 표현이 더해지거나 이중 부정표현을 이용해 번역되었다. 영어 역은 '명사 ⇨ 명사, 형용사' '형용사 ⇨ 형용사, 동사' '동사 ⇨ 동사, be+동사의 과거분사, be+동사의 현재분사'로 형용사와 분사표현이 중심을 이루었다. 감정 표현의 유형을 보면 한국어 역은 'Joy類' 'Love類'의 감정 표현의 유형 외에, 마음과 신체 내부의 안락함과 '怖'의 상태가 아닌 감정 유형이 보였다. 영어 역의 경우, 'Joy類' 'Love類'의 감정 표현의 유형 외에, 신체의 안락함, 예상 밖의 플러스적인 결과, 성취감과 '怖' '怒' '哀'의 상태가 아닌 감정 유형이 보였다.

<구조상의 특징> 다음과 같다. 문중에 감정 주체가 있는 경우, 감정 주체가 1인칭일 때, 서술자는 감정 주체 및 감정 주체가 느끼는 신체 부위를 제시하면서 감정의 직접적인 표출로 번역되었고, 1인칭이 아닌 경우는 '~모습' '~보이다'처럼 감정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표현이 이용되어 번역되기도 했다. 또 대인 관계를 고려한 표현도 있었다. 영어 역은 자기중심적인 사람 주어 외에 감정원인, 대상, 상황이 주어로 오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따라 화자의 구체적인 동작, 사건의 판단, 원인 유발 분석 등 감정 주체가 처한 상황과 분위기를 설명하는 문 구조가 이용되어 번역되었다. 그리고 일부 예에서는 보고 판단하는 지각 동사, '快·喜'의 감정 상태를 만드는 사역동사, 인식 동사가 사용되는 등 다양한 표현이 이용되었다. 문중에 감정 주체가 없는 경우, 한국어 역을 보면, 감정 주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본어가 제시한 것처럼 생략되어 번역되는 모습이 보였다. 문장 내에 사용된 서술어의 성질에 따라 감정 표현의 어휘는 사전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담화 속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확장된 표현으로 나타났다. 영어 역을 보면, 생략된 감정 주체를 대부분 복원시켰고, 감정 주체가 없는 문은 '快·喜'라는 감정 상태를 촉발한 대상을 주어로 내세워 감정 주체의 상태를 외부에서 판

단 가능하도록 설명하거나 화자가 확인하고 추측하는 문형이 이용되어 번역되었다. 그밖에 구체적인 행위, 사건 설명으로 번역하는 등 ‘快·喜’의 감정 표현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표현이 이용되었다.

금후 본고를 바탕으로 ‘快·快’의 감정 영역 외에 다른 영역으로도 확장해 나아가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남기심·고영근,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87.
- 라데군디스 슈톨체, 『번역이론 입문』, 임우영 외 역, 한국외국어대학 출판부, 2011.
- 윤상인 외, 『일본문학 번역 60년 현황과 분석』, 소명출판, 2008.
- 이희자·이종희, 『조사어미사전』, 한국문화사, 2010.
- 고은숙, 「日韓兩國語의 感情形容詞文의 特徵에 關한 一考察」, 『日本語學研究』 제8집, 2003.
- 김정정, 「일한문학번역의 독자지향적 경향 연구 -『도련님』 번역본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36, 2007.
- 김광태, 『日韓兩言語의 感情의 오노매토피어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김은영, 『국어 감정 동사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송은미, 「日・韓兩言語の慣用句に現れる感情表現」, 『日本語學研究』 제4집, 2001.
- _____, 「한일 양언어의 감정복합동사의 구조분석」, 『日本語學研究』 제30집 2011.
- 오현아·박진희, 「한국어와 영어의 발상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청자 중심 원리와 화자 중심 원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28집, 2011, pp1-29.
- 이원경, 「감정동사의 분류와 특성분석」, 『담화의 인지』 13, 2006.
- 이한정, 「번역된 텍스트의 이질적 공간-나쓰메 소세키 『도련님』의 한국어 역에 대하여-」, 『일본어교육』 50, 2009.
- 최석재, 「감정동사의 유형과 그 의미특성」, 『어문논집』 58, 2008.
- 池上嘉彦, 『英文法を考える』, ちくま学芸文庫 1995.
- 泉子・k・メイナード, 『愛するふたりの「感情ことば」』, くろしお出版, 2001.
- 井上優, 「言語の対照研究の役割と意義」 『対照研究と日本語教育』, 国立国語研究所, 2002.
- 金谷武洋, 『日本語文法の謎を解く』, ちくま新書, 2003.

- 金田一春彦, 『日本語 上』, 岩波新書, 1988.
- 工藤真由美, 『アスペクト・テンス体系とテキスト—現代日本語の時間の表現—』, ひつじ書房, 1995.
- 久野暲, 『談話の文法』, 大修館書店, 1978.
- 月本洋, 『日本人の脳に主語はいらない』, 講談社, 2008.
- 豊田豊子, 「補助動詞『やる・くれる・もらう』について」, 『日本語学校論集』 1, 東京外国語大学, 1974.
- 中村明編, 『感情表現辞書』, 東京堂出版, 1993.
- 中村桃子, 『翻訳がつくる日本語』, 2013, 白澤社.
- 堀口純子, 『日本語教育と談話分析』, くろしお出版, 1997.
- 牧野成一, 『ウチとソトの言語文化学—文法を文化で切る』, アルク, 1996.
- 森田良行, 『基礎日本語辞典』, 角川書店, 1989.
- _____, 『日本語の視点—ことばを創る日本人の発想—』, 創拓社, 1995.
- 山下秀雄, 『日本のことばとところ』, 講談社, 1986, p.140.
- 楠見孝・米田英嗣, 「感情と言語」 藤田和生(編) 『感情科学の展望』, 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07.
- EGサイエンステッカー・安西徹雄, 『スタンダード英語講座第2巻日本文の翻訳』, 大修館書店, 1983.

참고자료

- 서석연 역, 『마음』, 범우사, 1990.
- Edwin McClellan, 『KOKORO』, HENRY REGNERY COMPANY, 1957.
- 国立研究所, 『分類語彙表—増補改訂版』, 2004

❖ ABSTRACT

A study of the aspect of translation of
'Kai(快)·喜(Ki)' in the novel 『Kokoro』
– Focusing on novels translated in Korean and English

Yang, Jung-Soon
Kyunghee University

This study is especially focused on the vocabulary that describe emotion and analyzes the aspect of translation when emotional expressions of 'Kai(快)·喜(Ki)' are shown on 『Kokoro』. It focuses on <Meaning> <Structure> to analyze the aspects of translation that were restructured by translators.

The vocabulary that described the emotion of 'Kai(快)·喜(Ki)' in Japanese sentences was mostly translated into the corresponding parts of speech in Korean. Some words that expressed 'Kai(快)·喜(Ki)' were translated to 'nouns ⇨ nouns, adjectives' 'adjectives ⇨ adjective, verbs' and 'verbs ⇨ adjective, verbs'. Some adverbs needed to add 'verbs' when they were translated. Also, different vocabulary was added or used to maximize emotion. However, the correspondence of a part of speech in English was different from that in Korean.

The examples of Japanese sentences that expressed 'Kai(快)·喜(Ki)' by verbs were translated to the expression of participles for passive verbs, such as 'please' and 'amuse' in many cases.

In Korean translations, types of emotion, such as feeling mentally and physically comfortable, and getting out of the state of 'fear', were shown besides types of emotional expressions of 'Type of Joy', and 'Type of Love'. In English translations, types of emotion, such as feeling mentally and physically comfortable, achievement, and getting out of the state of 'fear', 'sadness', or 'anger' were shown besides types of emotional expressions of 'Type of

Joy’ and ‘Type of Love’.

The main agents of emotion were shown in the first person and the third person in simple sentences. The translation of emotional expressions when the main agent was the first person showed that the fundamental word order of Japanese was translated as it was in Korean. However, the English translations showed examples that had the cause of emotion or expressions of emotion as the subject of sentences to make the owners of emotion realize something or judge something objectively, as well as speakers directly expressing their emotional states.

Key Words : emotional expressions, patterns of emotion, expressions of ‘Kai(快)·喜(Ki)’, the main agent of emotion

■ 논문접수일 : 2019. 11. 10

■ 심사완료일 : 2019. 12. 01

■ 게재확정일 : 2019. 12. 03